

투데이 칼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

조선과 일본의 교육기관은 근대화 과정에서 크게 달랐다. 조선은 관념과 정쟁을, 일본은 실용과 협치를 가르쳤다. 그 결과 조선은 나라를 빼앗기고 만다. 그 뒤 일본은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을 차례로 굴복시켰다.

당시 조선에는 명륜당(明倫堂) 그리고 일본에는 명륜관(明倫館)이 있었다. 두 건물은 '인륜을 밝힌다.'는 의미의 명륜(明倫)이란 간판을 똑같이 내걸었다.

명륜당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유교를 가르치던 곳으로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 안에 있다. 일본의 명륜관 역시 인제 양성소다. 시모노세키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하기'에 있다.

조선의 유학은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유생들 사이에도 파벌 싸움이 극에 달했다. 성균관에 있는 동재와 서재라는 두 개의 기숙사는 유생들이 파벌에 따라 나누어 거거했다.

한쪽은 노론 유생이, 다른 쪽은 소



정복규
논설위원

론과 남인 유생이 머물렀다. 반면 일본의 명륜관은 유학 대신 영어와 과학을 가르쳤다.

물론 이곳에서도 처음엔 유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맞게 영어와 세계지리 및 세계사, 공학 등을 가르쳤다.

명륜관의 교과목은 일본의 근대화 주역인 메이지유신의 토대가 됐다. 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1868~1889년)이 이끌었다. 메이지유신은 하급 무사들이 일으킨 정변이다.

이 정변으로 250년 일본을 다스려왔던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혁명정부가 예도(지금의 도쿄)에 들어섰다. 메이지유신의 주역은 바로 명륜관에서 공부를 한 (조슈번(아마구치현)의 젊은 무사들)이다.

이들은 '조슈 파이프'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명륜관 1, 2층에 각종 근대 유물을 전시한 가운데 (조

슈 파이프 포토 존)이 있다. 2009년 '빌딩 유학생' 5인을 다룬 영화 '조슈 파이프'가 개봉되면서 불은 별칭이다.

이곳에는 인물들을 실제 사람 크기의 관넬로 만들어놓았다. 이토 히로부미(1841~1909년) 조선총독부 초대총감도 있다. '외교의 아버지' 이노우에 가오루, '조폐의 아버지' 엔도 긴스케, '철도의 아버지' 이노우에 마사루, '공학의 아버지' 야마오 요조 등도 있다.

명륜관은 영국인과 스웨덴인도 초창기 공학을 가르쳤다. 철단공학을 익힌 무사들이 일본 공업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공업화에 착수한 지 50년도 안 돼 서구 열강에 버금가는 산업국가가 되었다.

일본 공학교육의 주축인 도쿄공대(東京工大)도 명륜관에서 시작된 공부학교(工部學校)가 시작이다. 명륜

관이 일찍부터 공학에 집중한 배경에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스승이 있다.

요시다의 자신의 고향 (하키)에 쇼카순쥬크(松下塾)라는 학당을 세웠다. 이곳에 조슈 파이프가 적을 두었다. 요시다의 서양 학대가 시모노세키 항에다 포격을 가해 항구가 박살이 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서양의 군사력과 산업의 위력을 절실히 느꼈다.

요시다의 조슈 파이프에게 서양의 문물을 배우라고 독려했다. 조슈 파이프는 영국으로 밀항했다. 증기선과 증기 기관차 그리고 고층 건물을 보면서 외국인들 오랑캐로 여기고 배척하는 이른바 양이(攘夷)라는 생각이 사라졌다.

이들은 공업 행정에 관심을 두고 영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공부성을 설립했다. 공부성은 광산·제철·조선 등 근대국가 건설에 없었던 안 되는 부분을 총괄했다. 철강공업 중심의 공업 국가로 나아갔다.

화폐 제조의 기계화에 착수하고 철도 건설 및 기술자 양성에 힘썼다. 동전 주조의 기계화는 물론 근대적 금속 용해로인 반사로, 그리고 서양식 군함을 처음 만들었다. 조선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사설

대통령의 8·15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8·15 경축사를 국경 전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했다.

대일 메시지와 남북 화해,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8·15 경축사는 이런 관행을 뛰어넘었다.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했다.

반면 야권 등 비판 세력을 향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공산전제주의를 팽창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8·15를 앞두고 단행한 특별 사면은 삼권분립 원칙마저 붕괴했다. 불과 석 달 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느 구

청장을 '공익 신고자'라는 명분으로 사면·복권시켰다.

법원은 일관되게 그의 무차별 폭로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6명도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명분도 없다. 대통령은 즉흥적 판단으로 정책 혼선을 빚어서도 안 된다.

거대 야당을 적으로 돌리는 바람에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공허한 발언을 앞세워 입법·사법권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외교 안보 영역은 국민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방전의 첩병으로 나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는 일부터 멈춰야 한다.

전주시 행정동과 법정동

일부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완산동과 서신동, 중화산동, 평화동, 여의동은 행정동 35개, 그리고 대성동, 색장동, 고량동, 도덕동은 법정동 83개로 이뤄져있다.

서신동과 진북동처럼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 내 여러 법정동이 속해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동서화동 안에는 동서화동과 대성동, 색장동이 속해 있다.

조촌동에는 반월동과 화전동, 용정동, 성덕동, 원동, 도도동 등 9개의 법정동이 있다. 반대로 한 개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유아1동과 유아2동이 법정동인 유아동 3가를 포함하고 있다.

삼천동 1가도 행정동인 삼천동과 삼천2동에 걸쳐 있다. 두 개 이상의 행정동과 두 개 이상의 법정동이 섞여있기도 한다. 행정동인 여의동 안에도 법

정동인 만성동과 장동이 있으며, 혁신동 안에도 만성동과 장동이 있다.

익산시 행정동인 삼성동은 부송동과 월성동, 일성동, 정족동을 관할한다. 군산시 법정동인 개사동은 행정동인 나운3동과 미성동에 속해 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사용된 명칭으로 모든 법적 서류에 사용하는 명칭이다. 반면 행정동은 '주민센터'로 불리는 지방행정기관 관할구역이다. 행정기관들이 주민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해 놓고 있다.

인구가 적은 법정동들을 모두 관할하는 하나의 주민센터인 행정동이 있을 수 있다. 법정동이 인구가 너무 많거나 면적이 넓을 경우엔 하나의 주민센터가 감당하기 어려워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있을 수 있다. 만성동과 장동의 경우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혼재된 경우도 있다.

독자제언

원룸 주택가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나 시골 어디에나 원룸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기존 지어진 원룸이나 최신 원룸 역시 방범망이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원룸 입주자 중 상당수는 홀로 거주하는 여성들이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

첫째, 입주자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룸 내외각 주변에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원룸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많으나 외곽에는 대부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가스 배관 등에 덮개를 씌워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 가스 배관 등

을 이용하여 2, 3층에 침입하여 경우가 많다.

셋째, 방범창을 설치하여 베란다·독육탕 창문 등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넷째, 입주자들도 원룸은 세입자들이 자주 바뀐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 입주하면 열쇠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베란다 잠금장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날로 늘어나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원룸 주택가에 대해서 경찰이 실시간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업주와 세입자도 스스로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제가 필요하다.

박규선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논에 나타난 대형 토끼



지난 6일(현지시각) 중국 동북부 라오닝성 인산시 타이안현의 한 논에 각기 다른 색깔의 살아있는 식물들로 구성된 논 그림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